

<운수 좋은 날>과 에너지 보존

주하진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을 한 번 쫘은 읽어봤을 것이다. 아무리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 소설은 한 번쫘 읽어보았으리라. 그만큼 이 소설은 텍스트가 짧고 서사도 강렬해서 현대 사람들에게 잘 읽힌다. 1924년 쓰인 이 소설은 비극적 서사와 그 복선을 마련하는 방식의 정석으로 알려져 있고, 어쩌면 그만큼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개가 뻔하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소설 속의 김 침지는 정말로 당시에 있었을 법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 있다. 그 짧은 분량 안에서 이런 비극적인 서사를 펼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나는 경탄했다. 놀라운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퍼뜩 든 생각이 있었다. 이 소설의 서사의 진행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닮았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를 꺼내려는지를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쌍뿔맞게 소설에서 웬 에너지 보존 법칙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충 생각해보더라도, 김 침지의 운수는 등락이 급하다. 한 번 논의해보자. 앞에 묘사된 김 침지의 인력거 생활에 대한 묘사를 볼까? 그는 인력거가 된 지 2주가 채 안 된 듯 하다.

첫번째 삼십 전, 둘째 번에 오십 전 - 아침 댕바람에 그리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음불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 침지는 십 전짜리 백통화 서 푼, 또는 다섯 푼이 찰싹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제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뻐었다.

1전은 시세 환산을 했을 때 2022년 기준 1천원이라고 볼 수 있다. 최고로 번 게 50전. 위 같은 묘사로 봤을 땐 이 가족에게는 김 침지가 인력거가 되기 전이나 후나 경제적인 운이 온 적이 없다. 소설의 이 날을 '오늘'이라고 해보자. '오늘'은 김 침지의 가족에게 유례없이 운수 좋은 날이 맞다. '오늘'은 무려 30원을 벌었는데, 이는 2022년 기준 30만원에 해당한다. 30만원이라니! 지금으로 따지면 에어팟 프로 하나를 살 수 있는 큰 돈 아닌가.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그에게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는 엄청 불행한 일이 생겨버린다.

아내가 죽은 비극을 어디 돈과 교환할 수 있겠느냐만, 이 점만 한번 생각해보자. 아내가 죽은 '비극'의 크기가 아닌 '불운', 즉 확률의 크기만 보도록 하는 것이다. 2021년 기준 통계에서 1년 사이에 어떤 이유에서든 사망하는 사람의 비중이 30대에서는 만 명 중 7명, 40대가 넘어서는 만 명 중 15명, 50대는 만 명 중 30명이라고 한다. 당시에는 하층민이라면 사망률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 명 중 몇 명으로 측정되는 만큼 '죽을 확률'이라는 건 작은 게 사실이다.

그럼 누군가 직장에서의 급어로 갑자기 떼부자가 될 확률은 얼마라

고 볼 수 있겠는가? 김 침지의 처지를 생각하면, 현대 시점에서 가장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최저시급도 주지 않는 악덕 업주 아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된다. 미국이라고 치면, 그러한 업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팁을 300달러나 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사건'이라는 것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이분하고, 그 사건의 확률의 절댓값이 작을수록 각 부호에 대해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라고 정의해보자. 이와 같은 정의는 '운수'라는 것을 첫째, 위에서 말한 사건으로 인한 김 침지의 감정을 그 방향—긍정적,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자는 걸 의미하고, 둘째, 돈의 가치와 아내의 목숨에 상관없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만을 보자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 확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김 침지가 30원을 번다는 사건과 아내의 사망이라는 사건은 독립시행이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즉 정의에 따르면 김 침지가 30원을 번다는 사건은 엄청난 행운이고, 아내의 사망이라는 사건은 엄청난 불운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한 '운수'의 정의에 의해 수치화할 수 없는 '운수'는 대략적으로, 행운과 불운의 합이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봐도 되겠는가?

나는 <운수 좋은 날>에서 보이는 모습을 '**운의 총합이 보존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기본적인 물리 법칙에서 항상 지켜지는 세

가지의 보존 법칙—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각운동량 보존 법칙—처럼 말이다. 물질 우주에서 이들을 어기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1918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증명된 바 있다.¹

어떠한 계에 연속적인 대칭성이 있으면, 대응되는 보존되는 물리량이 존재한다.

즉 보존 법칙이야말로 실재하는 우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들이다.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의 움직임과 변화의 토대에 '보존 법칙'이 자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물리량들 뿐 아니라, 그러한 법칙들에 토대를 두고 있는 일반적인 물질 사이에서도 충분히 보존 법칙처럼 보일 수 있는 현상들이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한 번 예를 들어보자면, 일단 '잠 보존의 법칙'이 있다. 수면의 총량은 일정하다. 즉 하루를 조금밖에 못 자면 다음날 그만큼 수면시간을 채워 넣어야 한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밤을 어떻게든 잤다 하면, 그 다음날과 다다음날에는 정신을 못 차리는 식이다. 혹시 자신은 밤을 언제든 쉴 수 있고 전혀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 법칙의 예외라고 생각되면, 대학을 가 보라. 입시 시절 자지 못한 잠을

¹ 뇌터 정리로 알려져 있다.

대학을 다니면서 신나게 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당신은 아마 그 중 한 명일 것이다. 잠 보존의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 마치 실제 보존 법칙들처럼.

또 무엇이 있을까. 혹시 '또라이 보존의 법칙'을 들어봤는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언제나 어디서나 일정 수의 또라이가 존재한다는 법칙으로 직장에서 통용된다고 한다. 한 팀에 또라이가 있어서 팀을 옮기면 그 팀에 똑같은 또라이가 있다. 팀을 옮겼더니 여기 또라이는 조금 덜 또라이다 싶으면 그런 또라이가 여러 명이다. 만약 이를 악물고 버텼더니 그 또라이가 나갔다고 치자. 그 자리에는 또다른 또라이가 들어온다. 이 법칙에 따라 만약 '우리 회사엔 그런 또라이가 없는데?' 싶다면... 바로 당신이 그 또라이인 것이다.

'운수 보존의 법칙'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운이 좋고 나쁘고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낮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으니, 이 정의에 따라서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다. 만약 당신의 성적이 매우 높게 잘 나왔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그 날 어떠한 방식으로든 평소에는 일어나기 힘든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당신 기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사건을 당신이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그 사건은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을 거고 그게 대부분일 수 있다. 그럴 경우 당신은 하루종일 기분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이 조용히 지나가지 않고 매우 크거나, 약간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운수 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

계속해서 운수 보존의 법칙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정의 총량은 보존되지 않을까? 우리는 기분의 오르내림이 짧은 기간 안에서는 보존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잠 보존의 법칙을 생각해보면, 그 주기가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삶이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다. 그 오르내림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삶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빠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 감정은 균형을 이룰 것이다. 아, 짧은 기간 안에서 감정이 보존되는 상황도 경험해보신 분들이 혹 계실 수 있다. 아침에 텐션이 너무 높으면 그 날 밤은 텐션이 엄청나게 낮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반대로 아침에 기분이 너무 축 처져 있으면 그날 밤에 컨디션이 좋으리라고 기대해도 좋은 그러한 상황들 말이다. 이런 걸 경험해본 사람은 그냥 씩 웃어주시길.

무언가가 스스로 원점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들은 이런 추상적인 법칙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과학적인 것에서부터 일상적인 것, 심지어는 인문학적, 예술적인 것까지에서도 말이다. 지구에서는 대기가 순환하고, 해류가 순환한다. 물 자체도 수권과 해권을 오가며 순환한다. 생명체는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인 '항상성'이 매우 중요하다. 소설의 서사만 하더라도,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을 따라 갈등의 양상이 돌아온다.(다만 서사의 경우, 결말에서 갈등의 크기가 아예 발단

수준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고전 음악에서 가장 완전하고 우아하다고 여겨졌던 '소나타 형식'은 제시부가 연주되고 전개부가 진행되다가, 제시부의 멜로디를 다시 반복하는 재현부로 돌아오는 형식이다.

우린 이러한 것들을 '안정되다'고 느낀다. 앞서 말했지만 어떠한 면에서 보면 일상 속이나 서사에서 재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보존 법칙들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우리는 보존 법칙 위에 서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니 말이다. 따라서 안정하다고 느끼는 것 역시 당연할 수 있다.

오늘 운수가 많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다면, 걱정하지 마라. '운수 보존의 법칙'에 따라 곧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다만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행운의 여신은 생각 이상으로 당신의 기분에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행운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당신의 안정을 되찾게 된다.